

# 포스트휴먼 담론으로 다시 읽는 『아이, 로봇』의 제 문제

The Various Problems in *I, Robot* Re-read as a Posthuman Discourse

황선희\*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집 『아이, 로봇』을 포스트휴먼 담론으로 독해한 것이다. 포스트휴먼 담론은 '인간'이라는 범주 안에 묶이지 못했던, 소외된 존재들을 다시 살펴보게 한다. 『아이, 로봇』에는 포스트휴먼 담론의 문제의식을 선취한 대목들이 발견되어 주목을 요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간과 로봇을 둘러싼 '편견'의 문제, 인간과 비인간이 접점을 이루는 '횡단'의 양상, SF 너머의 '공동체'에 대한 상상 등을 다루며 『아이, 로봇』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문학적으로 탐구하였다.

포스트휴먼 담론은 인간이라는 개념적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혼종적이고 유목적인 주체 개념을 제시한다. 『아이, 로봇』은 인간과 로봇을 둘러싼 여러 편견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인간 혹은 로봇이란 어떤 주체인가 하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진다. 포스트휴먼의 수평적 존재론은 인간과 로봇의 관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아이, 로봇』은 인간과 로봇 사이의 횡단 가능성을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SF'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무한한 상을 그려줄 수 있는 장르이다.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과도 공존해야 하는 우리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자들이 하나가 아니며 똑같지도 않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이, 로봇』은 포스트휴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문학 텍스트로 더 다양하게 독해되어야 한다.

**핵심어** 아이작 아시모프, 포스트휴먼, 아이로봇, SF, 포스트휴머니즘

\*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HK 연구교수.

1. 서론
2. 편견: 인간/로봇은 어떤 주체인가?
3. 횡단: 지속 가능한 퇴기의 윤리
4. 공동체: SF 너머에 대한 상상
5. 결론

## 1. 서론

아이작 아시모프 Isaac Asimov, 1920~1992는 미국의 과학 소설가이자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sup>2000</sup>과 <아이, 로봇><sup>2004</sup>의 원작자로 잘 알려져 있다. 생화학을 전공한 그는 로버트 하인라인, 아서 C. 클라크와 함께 SF소설의 3대 거장 중 한 사람으로 꼽히며, 소설, 과학 에세이 등을 활발하게 집필한 다작의 작가로도 유명하다. 아시모프의 대표작으로는 『아이, 로봇』<sup>1950</sup>, ‘로봇’ 시리즈, ‘파운데이션’ 시리즈 등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이, 로봇』은 아시모프가 로봇 소설 작가로서 명성을 쌓기 시작한 초창기에 발표된 단편집이다. 『아이, 로봇』은 『행성 신문』의 기자 ‘나’가 주식회사 ‘U.S. 로보틱스’에서 로봇심리학의 선구자인 수잔 켈빈 박사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집에 수록된 각각의 텍스트들은 독립적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SF의 고전이자 필독서로서 『아이, 로봇』은 꾸준히 참조되고 읽혀 왔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로는 동명의 할리우드 영화 <아이, 로봇>을 꼽을 수 있다.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sup>01</sup>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이 영화

는 소설 『아이, 로봇』을 원작으로 삼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스토리라인과 인물, 사건 등은 원작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여 새롭게 창조한 것이다. 영화는 고지능의 로봇 NS-5와 그의 창시자인 래닝 박사의 죽음, 이에 대한 의문과 로봇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수사에 착수하는 스프너 형사를 다룬다. 영화에도 원작 속 로봇심리학자 수잔 켈빈 박사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는 스프너 형사를 돕는 보조 인물 정도로 그려진다. 이 영화는 래닝 박사의 죽음은 자살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는 스프너 형사를 주인공으로 삼아 로봇공학 3원칙의 면면과 모순을 파고든다.

선행 연구에서는 『아이, 로봇』에 재현된 캐릭터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기도 하고,<sup>02</sup> 인공지능과 윤리를 다루는 과정에서 『아이, 로봇』을 다루기도 하고,<sup>03</sup> 영화 〈아이, 로봇〉에 나타난 로봇의 의인화와 살인의 문제에 주목하기도 하였다.<sup>04</sup> 『아이, 로봇』을 다룬 선행 연구 대부분은 윤리(학)에 초점을 두고 텍스트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텍스트의 문학적 측면을 살펴보는 데 필요한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임선애의 논의는 『아이, 로봇』에 재현된 캐릭터 유형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검토함으로써 이 소설집의 문학적 가치와 의의를 밝혀 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sup>05</sup> 그럼에도 『아이, 로봇』을 논의의 중심에 두면서도

01 『아이, 로봇』에 제시된 로봇공학의 3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제2원칙: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 아이작 아시모프, 김옥수 역, 『아이, 로봇』, 우리교육, 2008, 6쪽.

02 임선애, 「아시모프의 『아이, 로봇』에 재현된 캐릭터 유형 연구」, 『문화와 융합』 85,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411~427쪽.

03 이동진, 「망가진 머리: 인공지능과 윤리」,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2018, 57~76쪽; 유은순·조미라, 「포스트휴먼 시대의 로봇과 인간의 윤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3, 한국콘텐츠학회, 2018, 592~600쪽.

04 김문주, 「영화 『아이, 로봇』에 나타난 로봇의 의인화와 살인」, 『한국범죄심리연구』 17(1),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7~17쪽.

05 임선애, 앞의 글, 411~427쪽.

포스트휴먼 담론으로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 방식의 독해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포스트휴먼 담론이 축적되고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자연스러워진 현시점에 SF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아이, 로봇』을 새로운 관점으로 읽어내려는 시도는 더 많이, 보다 섬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아이, 로봇』을 다시 읽기 위한 거점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포스트휴먼 및 포스트휴먼 담론은 어떤 것인가?

프란체스카 페란도는 포스트휴먼이 비인간인 동물에서부터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미지의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비인간(nonhuman)의 경험을 지식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을 인식론의 조건으로 제시한다”<sup>06</sup>고 해설하였다. 비위계적 관점을 취하는 포스트휴먼은 인간에게 어떤 종류의 우월성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포스트휴머니즘은 타자성 안에서 자신을 인지하는 ‘매개의 철학’으로 볼 수 있으며<sup>07</sup>, 인간 혹은 기술과의 관계만으로 설명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실천적(참여적)이어야 한다.<sup>08</sup> 엄격한 이분법의 잣대와 많은 것들의 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포스트휴먼 담론은 그동안 ‘인간’이라는 범주 안에 기입되지 못하고 누락되어 왔던 존재들을 새롭게 다시 바라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로지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이 “미래의 디스토피아적 비전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역사적 맥락을 정의하는 특성”<sup>09</sup>이라고 말했다. 유럽 중심적 휴머니즘의 장구한 역사 위에서 포스트휴먼 담론은 누가/무엇이 인간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 글에서는 이와

06 프란체스카 페란도, 이지선 역,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아카넷, 2021, 28쪽.

07 위의 책, 29쪽.

08 위의 책, 55쪽.

09 로지 브라이도티, 김재희·송은주 역, 『포스트휴먼 지식』, 아카넷, 2022, 14쪽.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삼는 포스트휴먼 담론을 경유하여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집 『아이, 로봇』을 새롭게 읽어 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주목한 윤리적 성찰의 태도를 잊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텍스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점화하고자 한다. 특히 『아이, 로봇』에서 다룬 여러 가지 논점들 중에서도 인간과 로봇을 둘러싼 편견의 문제, 지속 가능한 ‘되기’의 윤리를 향해 인간과 비인간이 접점을 이루는 횡단의 양상, SF 너머의 공동체에 대한 상상의 영역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를 통해 문학 텍스트로서 『아이, 로봇』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짚어 보고 포스트휴먼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 2. 편견: 인간/로봇은 어떤 주체인가?

‘로봇<sup>robot</sup>’은 체코 출신 작가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봇: 로슈의 유니버설 로봇』(이하 『로봇』)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일반명사처럼 사용하는 용어이다. 『로봇』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신조어 ‘로봇’은 본래 체코어로 ‘중노동, 부역노동’을 의미하는 ‘robota’에서 유래한 말이다.<sup>10</sup>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아시모프의 『아이, 로봇』에는 로봇들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각각의 에피소드들은 해당 로봇이 지니는 특징과 개성을 소개함으로써 로봇다움과 인간다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흥미로운 지점은 『아이, 로봇』이 로봇을 바라보는 긍·부정적 관점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관점 사이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부

10 김연수, 「카렐 차페크의 『로봇』에서 읽는 인간과 기계」,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41, 한국브레히트학회, 2019, 144쪽.

유하는 서술자를 그려 낸다는 점이다. 로봇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과 부정적 가치판단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제3의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아이, 로봇』의 서술자는 로봇-기계<sup>11</sup>에 대한 편견을 제시하며 그에 대해 문제제할 여지를 남긴다. 이러한 편견은 로봇공학 3원칙에 대해서도 고찰할 여지를 남긴다. 먼저 다음을 살펴보자.

① “내 말 잘 들어요. 앞으로는 우리 딸을 기계한테 맡기지 않을 거예요. 그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도 말이예요. 기계는 영혼도 없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이는 금속 기계한테 맡겨지려고 태어난 게 아니예요.”(아이작 아시모프, 「로비\_소녀를 사랑한 로봇」, 『아이, 로봇』, 김옥수 역, 우리교육, 2008, 23쪽<sup>12</sup>)

② “이제 알겠어? 말하는 로봇을 처음 만들었던 시대에 지구에서는 로봇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시기가 있었어. 제조업자들은 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을 말 잘 듣는 착하고 건강한 노예로 만든 거야.”(『스피디\_술래잡기 로봇』, 55쪽)

③ “네, 불공정 노동력 경쟁 등을 이유로 양전자 로봇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던 옛날부터 ‘U.S.로보틱스’를 방해하던 근본주의자 집단에서 파생된 조

11 기계는 레비 R. 브라이언트가 질 들뢰즈에게서 차용한 것으로 물질적 존재자나 비물질적 존재자, 유형의 존재자나 무형의 존재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는 그간의 철학사에서 뚜렷하게 구분되어 온 주체/객체 개념 중 객체 개념에 대해 새롭게 고찰할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객체를 기계 개념으로 대신하게 되면 사물이 행하는 바, 사물의 역능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는 유형 기계와 무형 기계로 나뉘는데 전자의 예로는 바위, 풀, 인체 등을, 후자의 예로는 방정식, 악곡, 소설 등을 들 수 있다. 레비 R. 브라이언트, 김효진 역, 『존재의 지도: 기계와 매체의 존재론』, 갈무리, 2020, 52쪽. 이 논문에서는 브라이언트가 정의한 기계 개념을 채택하여 활용하기로 한다.

12 지금부터 『아이, 로봇』 수록작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하는 작품명과 쪽수만을 표기한다.

직이죠. ‘인간을위한사회’ 자체가 슈퍼 컴퓨터에 반대하는 집단이에요. 그렇지 않나요?”(『피할 수 있는 갈등』, 339쪽)

(지금부터 등장하는 밑줄과 굵은 글씨는 모두 인용자의 것)

『아이, 로봇』의 배경은 2050년대로, 인류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이다. 『아이, 로봇』은 『행성 신문』 기자가 수십 년에 걸쳐 인간과 로봇의 다양한 모습을 목격해 온 수잔 캘빈 박사를 인터뷰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일종의 액자식 소설이다.

①은 1996년에 제작된 유모 로봇 ‘로비’에 대한 이야기 속 대사이다. 여기에서 로비가 돌본 소녀 글로리아의 어머니인 그레이스는 로봇에 대해 강한 불신과 적대를 보이는 인물로 그려진다. 한편 남편 웨스턴은 충직하고 사랑스럽고 다정한 로비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인다. 로봇공학 3원칙에 입각해 제작된 로비는 유모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되 인간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반려견처럼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레이스는 로봇이 3원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을, 웨스턴은 로봇은 3원칙에 입각해서만 움직이는 존재라는 생각을 지닌 것이다. 이들 부부와 달리 돌봄의 대상인 글로리아는 어떤 것도 로비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로비와 강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한다. 로봇에 대한 공부정의 입장을 정립하기 전에 로비를 만난 글로리아는 로봇이라는 존재를 편견 없이 대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②는 글로리아의 어머니 그레이스처럼 로봇에 대해 공포 어린 편견을 가지고 있던 과거 지구 사람들의 입장을 전한다. 말하는 로봇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지구에서는 로봇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시기가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자들은 로봇을 인간의 말에 복종하는 착하

고 건강한 노예로 만들었다. 2015년 수성 탐사를 위해 파견된 그레고리 파웰과 마이클 도노반은 아직 실험 중이던 신형 로봇 ‘스피디’에게 켈레늄을 구해 오도록 명령한다. 그러나 스피디는 켈레늄 웅덩이를 계속해서 맴돌기만 할 뿐 귀환하지 않는다.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로봇공학 제2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제3원칙이, 위험 요소가 있는 켈레늄 웅덩이 근처에서 충돌을 일으킨 것이다.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스피디는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된다. 고심하던 파웰과 도노반은,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제1원칙을 스피디가 따를 수밖에 없도록 파웰을 위험에 빠뜨려 문제를 해결한다. 이는 로봇공학 3원칙 사이의 충돌과 위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을 만든다. “말 잘 듣는 착하고 건강한 노예”라는 환상은 로봇을 켈레늄 웅덩이 주위에서 맴돌게도 하지만, 명령의 주체였던 인간을 구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③은 수잔 켈빈 박사가 불공정 노동력 경쟁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양전자 로봇을 규탄한 근본주의자들의 조직 ‘인간을 위한 사회’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다. ‘U. S. 로보틱스’로 대표되는 로봇 생산 기술을 반대하는 이 조직은 ‘인간을 위한 사회’가 ‘로봇을 위한 사회’와 함께 갈 수 없음을 역설하고 설파한다. 인간과 로봇이 화해롭게 공존하는 사회는 비현실적이며 인간 주체와 비인간 타자를 구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인간중심주의자들에 대해 소설 속 서술자는 뚜렷한 가치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의 존재를 언급함으로써, 수잔 켈빈의 목소리를 빌린 서술자는 그러한 관점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로봇

이라는 예측된 존재를 만들어 내는 것도, 로봇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결국은 세계의 중심에 인간을 두었다는 점에서 고찰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견고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인간(다움)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여러 세대에 걸쳐 담론이 축적되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사유하는 이성적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믿음은 다각도에서 비판되었다. 특히 포스트휴머니즘은 로지 브라이도티가 밝힌 대로 “반휴머니즘의 유산, 더 특정하게는 포스트구조주의 세대의 인식론적 정치적 토대 위에 세워지고, 그곳에서 더 앞으로 나아간”<sup>13</sup>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남성중심적이고 유럽중심적인 방식으로 전개된 휴머니즘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특별한 것으로 규정하고 옹호해 왔지만, 포스트휴머니즘에서는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 물질들을 환경 속에 배태되어 있는 자연의 일부로 파악한다. 포스트휴먼 담론은 ‘인간’이라는 범주로부터 배제된 채 타자로 규정되어 왔던 많은 존재자들의 목록을 되살피며 인간, 인간성, 인간다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다. 패러다임은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고 혼종적이며,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포스트휴먼 담론에서 인간은 “물질적으로 신체화되고 뿌리박혀 있으며 차이적, 정서적, 관계적인 존재로 간주될 필요가 있”<sup>14</sup>는 존재로 여겨진다.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을 구분하는 낡은 도식만으로는 이 세계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포스트휴먼 주체는 혼종적 다양성으로 가득한 중간지대들을 받아들이고 상호 접속과 돌봄의 사고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포스트휴먼 담론의 관점을 토대로 ①을 다시 읽을 때, 이와 같은 발언

13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53~54쪽.

14 로지 브라이도티, 김재희·송은주 역, 『포스트휴먼 지식』, 아카넷, 2022, 28쪽.

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을 위한 사회’ 같은 부류의 지구인들은 로봇-기계를 괴물화하며 그들과의 공존을 거부하는데, 이는 괴물성의 본질적인 요소가 “혼종성의 요소, 즉 범주적 구분이나 구성적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sup>15</sup>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없는 인간종 사이에서 서로를 악마화하는 태도가 나타나듯이 로봇-기계의 혼종성, 인간과 로봇 사이의 경계 없음을 납득하지 못하는 ‘인간을 위한 사회’는 손쉽게 로봇을 괴물화한다. 그러나 제인 베넷이 강조한 대로 인간은 “견고 말하는 무기질”<sup>16</sup>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물질을 단지 수동적인, 날것 그대로의 재료로 보는 관점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스트휴먼 담론을 전개해 온 철학자들의 견해이다. 물질은 활기 없고 무력한 것이 아니며, 생명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물질은 항상 운동 중이기 때문에 특정한 것으로 환원되거나 규정되지 않는다.

포스트휴먼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주체는 이분법을 뒤흔들고 다른 것들과 기꺼이 뒤섞이는 존재, 혼종적이고 유목적인 주체이다. 여기에서 브라이도티가 역설한 ‘유목적 주체’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 욕망하는 기계이기도 한 유목적 주체의 특징으로는 “규칙, 역할, 모델에 대한 구조적 비고착성non-adherence”<sup>17</sup> 등을 들 수 있다. 유목적 주체는 잠재적 되기<sup>18</sup>와 개방, 착취당하고 주변화되고 억압받는 모든 소수자들의 변형

15 로지 브라이도티, 김은주 역,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꿈꾼문고, 2020, 404쪽.

16 제인 베넷, 문성재 역, 『생동하는 물질』, 현실문화, 2020, 56쪽.

17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책, 84쪽.

18 “되기 개념은 탈정체화와 탈중심화를 실행하는 소수자 되기를 주창할 뿐 아니라, 각기 독특한 신체들의 변용 능력을 긍정하며 모두의 변용 능력을 증강시키는 능동적인 행위를 만들어 내는 관계성을 창출하는 실험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되기는 행동학의 실천적 의미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김은주, 『여성-되기: 들뢰즈의 행동학과 페미니즘』, 에디투스, 2019, 6쪽.

하는 힘을 의미한다.<sup>19</sup>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했고 제인 베넷이 강조한 대로, 금속은 생기적 물질성의 전형이며 활기 있는 물질이다.<sup>20</sup> 브라이도티는 로봇도 인간과 동등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로봇이 오히려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급진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sup>21</sup>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 로봇』에서 확인하게 되는, 로봇(기계)에 관한 편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그 편견은 어떤 점에서 한계를 지니는가?

브라이언트는 기계에 관한 일반적인 편견들로 ① 모든 기계는 경직된 기계다, ② 모든 기계는 설계된다, ③ 기계는 목적이나 쓰임새가 있다는 등을 꼽았다.<sup>22</sup> 이것들은 기계가 학습, 성장, 발달을 하지 않는다고 보며 기계 위에 지적인 합리적 존재자로서의 설계자를 상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편견들이다. 기계에 목적이나 쓰임새가 있다는 편견은 경직된 기계를 기계의 전형으로 여기기 때문에 발생한다. 경직된 기계는 자신이 수행하는 조작의 변화를 겪을 수 없고, 그것의 유일한 운명은 엔트로피 혹은 궁극적인 해체이다.<sup>23</sup> 그러나 브라이언트에 따르면 기계는 설계자 없이도 설계될 수 있으며, 우리는 사물 자체에서 생겨나는 일종의 ‘기술적 지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종래에는 기계 자체가 설계자의 의도와 어긋나는 방식으로 설계에 이바지할 수도 있으며, 기계의 설계자가 기계를 설계하는 것에 못지않게 기계의 설계자는 기계에 의해 설계된다는 것이다.

19 위의 책, 165쪽.

20 제인 베넷, 앞의 책, 151쪽.

21 “로봇은 사실 인간보다 더 낫다. 사본이 원본보다 우월하다. 이러한 우월성은 미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 측면에서도 정의된다. 기계와 같은 분신은 완벽했다. 로봇은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정교함으로 격상된 책략이다.”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책, 414쪽.

22 레비 R. 브라이언트, 김효진 역, 『존재의 지도: 기계과 매체의 존재론』, 갈무리, 2020, 37~48쪽.

23 위의 책, 37쪽.

『아이, 로봇』에 등장하는 다양한 로봇들 또한 브라이언트가 지적한 세 가지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로봇은 학습, 성장,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며(「허비\_마음을 읽는 거짓말쟁이」), 그의 설계자는 마냥 지적이거나 합리적이지만은 않다(「큐티\_생각하는 로봇」). 또한 본래의 목적이나 쓰임새에서 이탈하는 자유로운 모습마저 보인다(「스피디\_술래잡기 로봇」, 「데이브\_부하를 거느린 로봇」, 「네스티 10호\_자존심 때문에 사라진 로봇」). 이렇듯 『아이, 로봇』에서 아시모프는 인간과 로봇을 둘러싼 근원적 편견에 균열을 가하고 인간과 로봇에게 다양한 개성과 모호성을 불어넣음으로써 인간은, 또한 로봇은 어떤 주체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그렇다면 인간과 로봇을 둘러싼 편견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을까?

### 3. 횡단: 지속가능한 되기의 윤리

『아이, 로봇』에서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술자는 의문이 발생할 만한 자리를 궁극적으로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판단을 유보하게 한다. 이 소설집에서 인간에 대한 편견이나 기계에 대한 편견 중 어느 쪽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사이 지대를 만들어 내는 장면을 발견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목적이나 쓰임새가 선행하지 않는 접촉의 순간, 존재들이 서로를 횡단하는 순간, 한쪽을 다른 한쪽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여기는 관점은 흐려지거나 지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기계들 또는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들이나 상호작용들의 지도를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존재지도학<sup>24</sup>의 관점에서 『아이, 로봇』에 나타나는 다양한 로봇 주체들의 면면을 살피고자 한다.

파웰은 갑자기 짜증이 났지만 꼭 참았다. 이 로봇은 특별한 두뇌를 가진 로봇이었다. 아, 물론 로봇공학 3원칙은 당연히 입력되어 있었다. 그건 의무였다. 로버트슨 사장은 물론 이제 막 입사한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U. S. 로보틱스'의 전 직원은 이 원칙에 집착했다. 그러므로 QT 1호는 안전하다! 그렇지만 QT 모델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로봇이며, QT 1호는 그중에서도 최초로 제작한 제품이었다. 게다가 종이에 갈겨쓴 수학적인 내용에 로봇의 모든 기능이 늘 정확히 적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큐티: 생각하는 로봇』, 84쪽)

전통 철학에서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데 포스트휴먼 담론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존재자들이 포스트휴먼 범주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이 다양한 존재자들이 세계를 맞닥뜨리는 방식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우주 기지로 수송된 로봇 '큐티'는 '특별한 두뇌를 가진 로봇'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큐티는 일주일 전까지 기억이 하나도 없다가 한꺼번에 생겨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로봇공학 3원칙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큐티에게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인간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큐티에게 파웰과 도노반은 수송된 부품을 조

24 '온토-카르토그래피(onto-cartography)'라고도 부를 수 있는 존재지도학은 지리적 공간의 지도를 제작하는 지리지도학과 서로 다르다. 존재지도학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더욱 잘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함으로써 우리가 세계에 개입하여 변화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브라이언트가 기계와 매체의 존재론을 서술하면서 '존재의 지도'를 그리고자 한 까닭도 존재지도학적 사유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레비 R. 브라이언트, 김효진 역, 『존재의 지도: 기계와 매체의 존재론』, 갈무리, 2020, 27~29쪽.

립하여 자신들이 그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큐티는 인간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을 설득해 보라고 말한다. 아무리 설득해 보아도 큐티는 지구가 있다는 것도, 우주나 별도 믿지 않는다. 특별한 두뇌를 가졌지만 오만해져 인간을 따르지 않는 로봇, 그리고 그 논쟁해야 하는 상황을 믿기 어려운 파웰과 도노반은 기지 통제권마저 큐티에게 넘겨주게 된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서류철을 넘겨보던 파웰은 큐티가 에너지 빔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상을 전환하게 된다.

“이봐, 도노반. 큐티는 다이얼과 장비와 그래프를 동원해 자기 주인님이 지시한 대로 따랐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하고 똑같아. 사실 이 정도면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은 걸 별충하고도 남지. 복종은 제2원칙이야.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건 제1원칙이고. 그렇다면 큐티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에너지 빔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바로 그거야. 큐티가 알든 모르든 상관 없어. 큐티는 자신이 우리보다 훨씬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신이 우수한 존재라고 계속 우기는 거야. 큐티로서는 통제실에서 우릴 몰아내는 게 당연한 거지. 로봇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쩔 수 없는 결과야.”(「큐티\_생각하는 로봇」, 113~114쪽)

‘생각하는 로봇’ 큐티는 ‘에너지 빔’에 대해서도 ‘주인님’이라는 존재가 고유한 목적을 갖고 쓴 것이라고 판단한다. 설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엉뚱한 믿음에 사로잡혀 버린 큐티를 인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은 점점 불가능해 보인다. 처음에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지만 큐티의 기지 운영 능력을 확인한 파웰의 생각은 변화한다. 큐티가 무엇을 믿거나 믿지 않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기지 운영 능력이라는 것이 파웰의

판단이다. 큐티가 인간에게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제2원칙의 문제이므로 제1원칙보다 우선순위에 놓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로봇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큐티의 뛰어난 기지 운영 능력은, 인간의 목적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괄호에 넣은 뒤<sup>25</sup> 비로소 발견된다. 결과적으로 로봇이 인간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믿음은 인간 아닌 절대자의 존재를 의지하는 큐티의 믿음만큼이나 터무니없는 것일 수 있다.

이렇듯 로봇으로 대표되는 기계는 단순하게만 존재하지 않고 기계들의 회집체로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인간 타자로서 복잡한 얽힘 가운데에 놓일 수 있다. ‘생각하는 로봇’은 단순한 유유도 역설도 아니라 뜻밖의 우연으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물질-존재의 한 측면인 것이다. 기계의 특성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역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로봇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검토하고, 그러면서도 그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수직적 존재론은 포스트휴먼 담론에 의해 수평적 존재론으로 대체된다. 수평적 존재론은 수직적인 것을 의심하는 존재지도학의 관점이며, 우연성과 창조성을 긍정하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새로운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아이, 로봇』에서 제시하는 로봇공학 3원칙에 모순과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로봇이 처한 딜레마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아이, 로봇』 텍스트를 통해 고민해 보자.

25 “목적에 있는 비인간 기계가 왜 그런 식으로 조작을 수행하는지 이해하려면, 이런 목표지향적인 비인간 기계의 목적이나 목표를 식별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괄호에 넣어야 한다.” 레버 R. 브라이언트, 앞의 책, 107쪽.

“딜레마에 빠졌을 때 로봇이 보이는 반응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로봇 심리학은 아직 많은 결점을 갖고 있지만,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말하는 데, 로봇의 양전자 두뇌에 입력된 모든 복잡한 장치에도 불구하고 로봇을 만드는 건 인간이며, 따라서 로봇은 인간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좌절감에 빠진 인간은 현실에서 도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상의 세계에 빠져 들거나, 술을 마시거나,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다리에서 뛰어내리곤 합니다.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마주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딜레마가 발생하면 계전기 절반이 고장 나고, 최악의 딜레마가 발생하면 양전자 두뇌 경로 전체가 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타 버리게 됩니다.”(『브레인\_개구쟁이 천재』, 246~247쪽)

『브레인\_개구쟁이 천재』에서 ‘연합 로봇’ 측은 방정식을 비롯한 온갖 유형의 수치 및 계산 방식을 5통 분량이나 제시하며 ‘U. S. 로보틱스’의 ‘브레인’에게 해답을 구해 달라고 할 것을 제안한다. 해답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브레인이 연합에서 빠뜨린 요소를 찾아낼 경우 U. S. 로보틱스는 성공 보수를 받게 된다. 위의 인용문은 ‘딜레마’에 빠졌을 때 로봇과 인간이 어떤 상태에 빠지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로봇 심리학자 수잔에 따르면 좌절감에 빠진 인간은 환상의 세계에 빠져들거나, 술을 마시거나, 히스테리를 부리거나, 다리에서 뛰어내리기도 한다. 로봇 또한 마찬가지여서 사소한 딜레마가 발생하면 계전기의 절반이 고장 나고, 최악의 딜레마가 발생하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고 만다.

로봇은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과의 관

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 인간과 로봇은, 딜레마까지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로봇은 인간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만들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로봇의 딜레마는 인간의 딜레마인 셈이다.<sup>26</sup> 브라이도티는 “주체의 비통일적 시각과 비선형성을, 정치적 실천을 재구성하고 정치적 주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들로”<sup>27</sup> 보았다.<sup>28</sup> 그 어떤 존재도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통일된 주체성에 대한 환상을 포기할 때야 포스트휴먼 시대를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아시모프가 선취한 다양한 문제들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시금 들여다봄으로써 지금-여기의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사물이 행하는 것에 주목할 때, 인간과 비인간 사물의 교차점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때, 비인간 사물은 단순한 객체에만 머물지 않는다. 결국 세계는 얽혀 있으며 이 세계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되기의 윤리가 필요한 것이다. 되기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작업 과정이다. 또한 그것은 미세한 조정과 재검토를 통해 기억의 정적 상태를 가로지르는 횡단선에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되기의 과정은 통일

26 2021년 불거진 이른바 '이루다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스캐터랩에서 출시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20대 여성으로 구현되었는데, 데이터화된 혐오와 차별,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문제 등으로 인해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해 수많은 쟁점을 만들어 냈다. 이루다가 인간에게서 학습한 혐오와 차별은 오염된 데이터가 인공지능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루다가 둘러싼 논란과 그 경과에 대해서는 손희정, 「인공지능과 젠더 테크놀로지: 이루다1.0 논란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5(2),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2022, 67~94쪽을 참조할 수 있다.

27 로지 브라이도티, 김은주 역, 앞의 책, 17쪽.

28 브라이도티는 주체 개념을 부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주체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그에 따르면 어떤 한 사람은 “주체성을 해체하거나 분해하거나 재정의하거나 포기하기 전에 “우선 주체가 되어야”(로지 브라이도티, 김은주 역, 같은 책, 122쪽)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소멸의 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여성’이라는 기표 또한 포기되기보다는 재점유되고 그것의 복잡성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성차’를 지우기보다는 절박한 질문으로 삼고자 하는 그의 입장과 공명하는 대목이다.

적이지 않으며 일방적이거나 정적이지 않다. 그것은 비통일적이며 상호적이며 역동적인, 유목적 주체를 필요로 한다. 영원히 변화하는 실재로서 그것은 횡단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아래의 인용문을 다시 읽을 때, 인간과 로봇을 분할하는 구분선의 존재는 상당히 흐려질 수밖에 없다.

“로봇의 세 가지 원칙은 인간 세상의 윤리 기준에 합당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보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로봇에게 이것은 제3원칙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식과 책임감을 지닌 ‘좋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합당한 권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의사나 직장 상사, 정부 기관, 심리 상담원과 동료의 말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 규칙을 따르고, 전통에 순응할 것입니다. 설사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안위와 평안이 손상되더라도 말입니다. 로봇에게 이것은 제2원칙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보호하며, 타인을 구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로봇에게 이것은 제1원칙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만일 바이어리 씨가 로봇의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따를 경우에 그는 로봇일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바이어리\_대도시 시장이 된 로봇」, 305쪽)

「바이어리\_대도시 시장이 된 로봇」에서 스테판 바이어리는 “오히려 인간이라고 하는 쪽이 어울리”<sup>29</sup>는 로봇으로 기억된다. 바이어리는 정적들의 음모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시장 선거 운동을 벌이고 2032년부터 공식 생활을 시작하였다. 바이어리는 출생 증명서에 의한 나이는 마흔이고, 외모 또한 그 정도로 보였다. 또한 건강하고 좋은 인상을 지녔

29 「바이어리: 대도시 시장이 된 로봇」, 287쪽.

다. ‘좋은 사람’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그에 대해 정적들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거나 과거 행적 중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인간’이 아닌 게 분명하다고 공박한다. 급기야 바이어리는 해명을 위해 사람들 앞에서 사과를 씹어먹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는 단지 로봇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받는데,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은 로봇공학 3원칙이 ‘좋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넌지시 보여준다. 로봇에게 적용된 세 가지 원칙은 “인간 세상의 윤리 기준에 합당한 기본 원칙”이기도 하므로 ‘좋은 사람’과 ‘로봇’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간 세상의 윤리 기준을 완벽하게 갖추었기에 로봇인지 좋은 사람인지 혼동되기까지 하는 바이어리를 보며, 사람들은 그가 대도시 시장이 되어도 좋은지 묻는다. 아시모프는 시장직을 잘 수행해 낸 바이어리의 일화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혼돈 섞인 질문에 나름의 답을 내놓는다.

좋은 사람의 윤리가 곧 로봇의 윤리이기도 하다는 발상은 지속 가능한 되기의 윤리가 결코 인간만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동신은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망가진”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상적”인 상대를 대하는 것보다 개인의 그리고 한 사회의 윤리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욱 확실한 지표”<sup>30</sup>일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바이어리를 두고도 온갖 논란이 따라다니는데, “망가진” 인공지능 머리를 만난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앞서 살펴본 ‘생각하는 로봇’ 큐티의 사례처럼 수행성을 유지하는 로봇이 아니라 그마저도 남아 있지 않은 로봇을 대한다면, 그때의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SF 너머에 있는 로봇

30 이동신, 앞의 글, 64쪽.

존재자들과 공존할 수 있을까?

이 장에서는 존재지도학의 관점에서 『아이, 로봇』에 나타난 다양한 로봇 주제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아시모프의 소설에서 ‘로봇’으로 대표되는 비인간 타자들은 단지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설계자로 보고 설계자만이 로봇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수직적 존재론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적이다. 복잡한 얽힘 가운데서 서로를 횡단하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자들은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복합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본다면 아시모프가 설정한 ‘로봇공학 3원칙’의 균열과 모순은 애초부터 매끄럽게 봉합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중심주의의 편견에서 벗어나 서로를 횡단하는 포스트휴먼 주제들의 상호 의존성을 긍정할 때, 비로소 ‘되기’의 윤리는 지속 가능하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의식을 품고 미래 공동체의 상에 대해 사유해 볼 필요가 있다.

#### 4. 공동체: SF 너머에 대한 상상

『아이, 로봇』에 수록된 「바이어리\_대도시 시장이 된 로봇」에서 로봇 바이어리는 시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해 내고 5년 뒤에는 지역의 전체 ‘조정자’가 된다. 2044년에는 지구의 모든 지역이 연합체를 구성할 때 최초의 세계 조정자가 된다. 가장 마지막으로 수록된 단편 「괴할 수 있는 갈등」은 바이어리가 세계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당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단편에서 인류와 세계를 위해 일하는 슈퍼 컴퓨터는 지상

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설정되는데, 수잔 박사와 바이어의 대화를 통해 슈퍼 컴퓨터에 대한 믿음은 계속해서 의문의 대상이 된다. 슈퍼 컴퓨터뿐 아니라 그것을 만든 인간, 그들 사이에 있는 수많은 존재자들은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저마다 살아갈 따름이다.

제인 베넷은 인간중심주의적 통념에서 소외되어 온 비인간 물질을 다루면서 그것들의 ‘생기적 물질성(vital materiality)’을 강조하고 물질의 능동적인 역능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물질이 철저히 죽어 있다거나 도구화되었다고 보는 관점은 “인간의 자만심과 정복 및 소비 등 지구를 파괴하는 우리의 환상”<sup>31</sup>을 키운다. 실제로 인간은 비인간과 공생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주디스 버틀러가 말한 대로, “살아 있다는 사실은 이미 나 스스로를 넘어서, 그리고 나의 인간성을 넘어서서 다른 살아 있는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sup>32</sup>이다. 인류세人類世<sup>33</sup> 담론이 대두하는 오늘날, 인간이 얼마나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신자유주의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개인주의를 벗어나 상호의존성과 취약성을 인정하자는 움직임<sup>34</sup>이 주목받는 흐름은 냉소 없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과 함께 SF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 병행된다면, 아시모프가 던진 여러 질문들에 대해 나름의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을

31 제인 베넷, 문성재 역, 『생동하는 물질』, 아카넷, 2020, 11쪽.

32 주디스 버틀러, 김응산·양효실 역,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2020, 65쪽.

33 ‘인류세’란 인류가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낸 새로운 지질시대를 가리킨다. “인간이 지구 상의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지닌 지질학적 세력이 된 역사적 순간”에, 인류세는 “인간을 지시하는 기본 준거 단위를 다시 생각하도록 돕는 생성적 도구”(로지 브라이도터,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13쪽)이다.

34 “직접적인 돌봄노동뿐 아니라 타인들과 지구의 번영에 대해 관여하고 염려하며 공동으로 책임” (더 케어 컬렉티브, 『돌봄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니케북스, 2021, 178쪽) 지고자 하는 더 케어 컬렉티브의 ‘돌봄 선언’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것이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로봇이 나타났고, 로봇의 도움으로 급기야 초공간 여행까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애덤 스미스나 칼 마르크스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는 어느 쪽도 그다지 타당하지 않으니깐요. 결국 양쪽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갈등도 거의 끝나고 말았지요. (『피할 수 있는 갈등』, 333쪽)

인용한 대목은 로봇공학 3원칙보다 앞서서 ‘0원칙’의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편 『피할 수 있는 갈등』의 한 부분이다. 로봇공학의 0원칙은 ‘로봇은 인류가 위협에 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안전에 대해 로봇에게 경각심을 심어 준 것이다.<sup>35</sup> 이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한다. 적기에 나타난 로봇의 도움으로 초공간 여행까지 가능해졌다는 『아이, 로봇』의 설정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로봇에게 의존할 수 있는지 상상한 결과다. 로봇의 등장으로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 중 한쪽을 택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었다. 아시모프는 인간에게나 유효한 양자택일의 상황 자체가 로봇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미래 사회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① SF는 이야기하기이고, 사실을 말하기이다. 지나간 것이든 지금 여기 있는 것이든 아직 오지 않은 것이든, 가능한 세계들과 가능한 시간들, 물질-

35 박상준, 「작품 해설: 로봇 우주의 창조자 아시모프와 〈아이, 로봇〉」, 아이작 아시모프, 김옥수 역, 『아이, 로봇』, 우리교육, 2008, 374쪽.

기호론적 세계들의 패턴 만들기이다.(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 『트리블과 함께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마농지, 2021, 59쪽)

② SF는 사물을 다르게 상상하려는 시도에 대해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고, 따라서 자신의 상상적 비행에 대해 일종의 인지적 책임을 부과하는 장르다. 이와 같이 SF는 사회뿐만 아니라 진보하기 위해 상상력과 반사성이 필요한 과학에도 이롭다.(로지 브라이도티, 김은주 역, 『변신: 되기의 유품론을 향해』, 꿈꾸문고, 2020, 347쪽)

③ SF는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기보다는 ‘지금 여기’를 탈친숙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안을 반영하기도 하고 유발하기도 한다.(위의 책, 348쪽)

①에서 해러웨이는 SF를 ‘이야기하기’이자 ‘사실을 말하기’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SF는 “가능한 세계들과 가능한 시간들, 물질-기호론적 세계들의 패턴 만들기”이다. 해러웨이가 볼 때 SF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는가이다. SF는 축수 있는 것들의 실뜨기(string figures), 사변적 우회(speculative fabulation), 과학소설(science fiction), 과학적 사실(science fact), 사변적 페미니즘(speculative feminism) 등으로 사유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sup>36</sup>

②에서 브라이도티는 SF가 사회뿐 아니라 진보를 위해 상상력과 반사성을 필요로 하는 과학에도 이롭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③에서처럼 SF가 할 수 있는 몫, ‘지금 여기’를 탈친숙화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짚어 냈다. SF의 프리즘을 통과하며 낯설어진 ‘지금 여기’의 모습은 불안을 반영하는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SF를

36 도나 해러웨이, 최유미 역, 『트리블과 함께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마농지, 2021, 59쪽.

정의한다면 SF의 확장 가능성은 무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공존의 방향을 사유하는 것이다. 『아이, 로봇』 말미에 수록된 「바이어리\_대도시 시장이 된 로봇」과 「피할 수 있는 갈등」은 세계의 조정자로서 로봇 바이어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인간과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 공동체의 건설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로봇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흥미로운 문제로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다. 페란도에 따르면 인간에게 로봇은 동일자이자 타자인 동시에 ‘괴물’이기도 하다. 로봇은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의 코드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며, “기계적 신체와 생물학적 두뇌를 지닐 수도 있다”.<sup>37</sup> 인간의 지식과 범주에서 생성된 로봇은 동시에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 페란도의 전언이다. 로봇을 인간에게 복종하는 존재자로 취급하거나 비인간 물질들을 착취하기 전에,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횡단하고 관계를 맺는 미래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인류세 시기에 우리가 공존해야 할 타자가 모두 인간이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유된 취약성, 조상의 집단적 폭력에 대한 죄의식, 갚을 수 없는 존재론적 부채의 멜랑콜리로 부정적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니라, 다수의 타자들과의 상호의존성을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묶인 공동체를 실현한다”.<sup>38</sup> 이렇듯 이질적인 존재들과 함께하는 공감의 공동체를 지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SF 너머에 대한 상상에 가닿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모두)-여기에-함께-있지만-하나가-아니고-똑같지도-않다”<sup>39</sup>.

37 프란체스카 페란도, 앞의 책, 226쪽.

38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131쪽.

39 로지 브라이도티, 김재희·송은주 역, 앞의 책, 87쪽.

## 5. 결론

지금까지 아이작 아시모프의 대표작 중 하나인 소설집 『아이, 로봇』을 포스트휴먼 담론으로 독해해 보았다. 포스트휴먼 담론에서는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재성찰하고 엄격한 이분법의 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에 포스트휴먼 담론은 ‘인간’이라는 범주 안에 미처 묶이지 못했던, 소외된 존재들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유럽 중심의 휴머니즘 관점에서 한없이 견고해 보였던 ‘인간’이라는 틀은 포스트휴먼 담론이 부상한 오늘날 새로운 사유의 대상이 되었다. 아시모프의 『아이, 로봇』에는 포스트휴먼 담론의 문제의식을 선취한 대목들이 발견되어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지점들에 주목하며 이 논문에서는 인간과 로봇을 둘러싼 ‘편견’의 문제, 인간과 비인간이 접점을 이루는 ‘횡단’의 양상, SF 너머의 ‘공동체’에 대한 상상 등을 다루며 『아이, 로봇』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문학적으로 탐구해 보았다.

먼저 2장에서는 인간/로봇은 어떤 주체인가 하는 물음을 출발점으로 삼아 『아이, 로봇』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편견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아시모프는 인간과 로봇에 대한 긍·부정적 가치판단을 종종 유보하면서 서술자의 부유하는 시선을 보여주는데, 이는 제3의 관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작중 인물인 수잔 켈빈 박사 목소리를 빌려 작가는 로봇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다. 포스트휴먼 담론은 인간과 인간다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혼종적이고 유목적인 주체 개념을 제시한다. 『아이, 로봇』은 인간과 로봇을 둘러싼 여러 편견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인간 혹은 로봇이란 어떤 주체인가 하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진다.

3장에서는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존재의 지도를 그리는 존재지도학의 관점에서 『아이, 로봇』에 나타난 다양한 로봇 주체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로봇으로 대표되는 비인간 존재는 그저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타자로서 복잡한 얽힘 가운데 놓인다. 수직적인 존재론을 비판하고 우연성과 창조성을 긍정하는 포스트휴먼의 수평적 존재론은 인간과 로봇의 관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다. 『아이, 로봇』의 중요한 토대인 로봇공학 3원칙의 모순 역시도 인간과 로봇이 딜레마까지도 공유한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다. 인간과 비인간의 횡단, 상호교차의 양상을 발견한다면 비인간 사물은 단순한 객체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는다.

4장에서는 앞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삼아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공동체의 모습을 성찰해 보았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더라도 이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자들은 서로 얽혀 있고, 그 얽힘을 인정하는 일은 냉소나 패배주의 없이 현실을 직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 ‘SF’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무한한 상을 그려줄 수 있는 장르이다. 인류세 시기의 우리는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과도 공존해야 한다. 우리가 모두 ‘지금 여기’에 함께 있지만 하나가 아니고 똑같지도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SF 너머에 대한 상상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 로봇』은 포스트휴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시모프가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자 대답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아이작 아시모프, 김옥수 역, 『아이, 로봇』, 우리교육, 2008.

### 2. 단행본 및 논문

김문주, 「영화 『아이, 로봇』에 나타난 로봇의 의인화와 살인」, 『한국범죄심리연구』 17(1),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김연수, 「카렐 차페크의 『로봇』에서 읽는 인간과 기계」,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41, 한국브레히트학회, 2019.

김은주, 『여성-되기: 들뢰즈의 행동학과 페미니즘』, 에디투스, 2019.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아카넷, 2017.

더 케이 컬렉티브, 『돌봄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니케북스, 2021.

도나 헤러웨이,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마농지, 2021.

레비 R. 브라이언트, 김효진 역, 『존재의 지도: 기계과 매체의 존재론』, 갈무리, 2020.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_\_\_\_\_, 김은주 역,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꿈꾼문고, 2020.

\_\_\_\_\_, 김재희·송은주 역, 『포스트휴먼 지식』, 아카넷, 2022.

손희정, 「인공지능과 젠더 테크놀로지: 이루다1.0 논란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15(2),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2022.

유은순·조미라, 「포스트휴먼 시대의 로봇과 인간의 윤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3), 한국콘텐츠학회, 2018.

이동신, 「망가진 머리: 인공지능과 윤리」,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2018.

임선애, 「아시모프의 『아이, 로봇』에 재현된 캐릭터 유형 연구」, 『문화와 융합』 85,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제인 베넷, 문성재 역, 『생동하는 물질』, 현실문화, 2020.

주디스 버틀러, 김용산·양효실 역,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2020.

프란체스카 페란도, 이지선 역,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아카넷, 2021.

## Abstract

### The Various Problems in *I, Robot* Re-read as a Posthuman Discourse

Hwang, Seon-Hui \*

This study tried to read Isaac Asimov's collection of novels, *I, Robot*, as a posthuman discourse. The posthuman discourse allows us to revisit marginalized beings who were not bound by the category of 'human beings'. In *I, Robot*, there are points that preempt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posthuman discourse, which requires atten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bias" surrounding humans and robots, the aspect of "crossing"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and the imagination of "communities" beyond science fiction, and explores the current meaning of *I, Robot* in literature.

The posthuman discourse presents a hybrid and nomadic concept of subject, pointing out that the conceptual boundary of human beings is not clear. *I, Robot* constantly ask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subject humans or robots are by cracking on various prejudices surrounding humans and robots. Posthuman's horizontal ontology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robots is by no means simple. In this regard, *I, Robot* can be said to be texts that show the possibility of crossing between humans and robots. SF is a genre that can portray the infinite image of the community that we should aim for. Having to coexist with humans as well as non-humans, we need to acknowledge that the beings living in this world are not one and not the same. *I, Robot* should be read more diversely as a literary text that asks the questions we need as we live in the posthuman era.

Keywords Isaac Asimov, Posthuman, *I, Robot*, SF, Post humanism

이 논문은 2023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2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Chung-Ang University.